

낮엔 환자, 밤엔 택시운전사

광주경찰, 보험금 타낸 '나이통 환자' 34명 입건

병원 빠져나온 환자, 방조 행위도 수사

광주지역에서 가벼운 교통사고에 도 병원에 상습 입원, 환자 행세를 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개인택시 기사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일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병원에 허위로 입원해 보험금을 받아낸 개인택시기사 유통(42)씨 등 34명을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피는 지난 2005년 1월 31일 오후 4시께 광주시 광산구 신가동 J아파트 앞길에서 빙판길에 미끄러진 오토바이가 신호 대기 중이던 자신의 개인택시를 들이받았으며

광주 J병원에 입원한 뒤 D보험사로부터 140만원을 타내는 등 최근까지 두 차례에 걸쳐 22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유피는 2개의 보험에 가입한 뒤 병원에 허위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방법으로 이를 개인택시 기사 34명이 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여 동안 D·H·S 등 23개 보험사로부터 타낸 보험금은 1억1천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또 가벼운 접촉사고를 당한 뒤 곧바로 병원에 입원, 보험사에

서 확인 조사를 나오는 낮에는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척하다가 야간에는 병원을 몰래 빠져나와 택시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특히 불황속에 생활비와 빛을 까기 위해 적게는 한 차례, 많게는 네 차례에 걸쳐 보험사기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찰에서 "가벼운 접촉사고였지만 상대 운전자가 가해사실을 부인하거나 대를 때 골탕을 먹이려고 병원에 허위입원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교통사고를 당한 개인택시 기사들이 입원치료기간 중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광주시내 개인택시 운전사 4천 760명의 교통사고 및 입원치료 경력,

금융감독원 보험금 지급자료 등을 대조해 이같은 보험사기 행각을 밝혀냈다.

경찰은 또 이들이 주로 입원한 광주 J·H·C·G병원 등 10여 곳에 대해서도 복인이나 방조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다음달 말까지 민생침해범죄에 해당되는 보험사기를 중대범죄로 보고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한편, 금융감독원 광주지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보험사기범은 전국적으로 4만1천19명(적발 금액 2천549억원)으로 전년도 3만 922명(2천45억원)에 비해 32.7%(1만97명)나 늘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전남대생들 "등록금 인하하라"

전남대학교 학생 1천여명은 2일 오후 종양도서관 앞에서 등록금 인하 촉구 집회를 가진 뒤, 가수 홍보 페스티벌에 참석해 등록금 인하를 촉구했다.

/워킹기자 jrwi@kwangju.co.kr

전화금융사기 중국인 5명 검거

목포경찰, 2명 구속

목포경찰서는 2일 우체국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전화금융사기를 벌인 관모(38)씨 등 중국인 2명을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무모(22)씨 등 중국인 3명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관모 등은 지난달 13일께 김모(여·57)씨의 집에 우체

국 직원을 사칭, 전화를 걸어 "정보유출을 방지해줄까?"고 속여 598만원을 계좌이체받는 등 모두 14차례에 걸쳐 1억4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서울·광주 등 지역별로 분산해 가로챈 돈을 인출하거나 흘러져 활동하는 등 점포 형태로 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목포=이상훈기자 lsh@kwangju.co.kr

불법 과격시위 땐

고춧가루액 뿌린다

경찰이 올해부터 불법 과격시위 때 경찰 병력을 보호하기 위해 이격용 분사기를 사용한다. 이격용 분사는 후주와 고춧가루 등에서 추출한 '캡사이신(capsaicin)' 성분의 약을 뿌리는 집회 대응 도구다.

경찰청 관계자는 2일 "집회 대응 기조를 기준으로 방어적 질서유지에서 적극적 법집행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09 집회시위 관리지침'을 1일 일선 경찰에 하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작년까지는 불법 집회가 발생했을 때 차벽을 이용해 시위대를 차단하는 등 방어적 질서 유지 활동에 치중했지만 앞으로는 불법 행위자는 현장에서 겨우고하고 집회 후에도 수사전달팀을 운용해 끝까지 주적하는 등 강경 대응키로 했다.

경찰은 작년 수도권 일선 기동대에 보급했지만 아직 사용하지 않은 이격용 분사기도 올해부터는 적극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경찰은 작년까지는 불법 집회가 발생했을 때 차벽을 이용해 시위대를 차단하는 등 방어적 질서 유지 활동에 치중했지만 앞으로는 불법 행위자는 현장에서 겨우고하고 집회 후에도 수사전달팀을 운용해 끝까지 주적하는 등 강경 대응키로 했다.

경찰은 작년 수도권 일선 기동대에 보급했지만 아직 사용하지 않은 이격용 분사기도 올해부터는 적극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광주에 시집온 외국인 여성들

"언어 소통 가장 어려워" 20% "가정폭력 당했다"

756명 설문조사

했다.

광주지내에 거주하는 기혼 외국인 여성은 언어소통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5명 중 1명꼴로 가정폭력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최근 광주시가 전남대 생활과학연구소에 의뢰해 이 지역에 거주하는 2천807곳의 다문화 가정 내 외국인 여성 75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드러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혼 외국인 여성들은 언어습득(45.3%)뿐 아니라, 경제적 문제(13.8%)나 문화 적응(12.7%) 등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언어적 또는 신체적 가정폭력도 대상자의 19.6%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여성의 결혼연령은 25~30세가, 남편은 41~45세가 높은 비중을 보여 평균 10세 이상의 연령차를 보였다.

또 매달 평균소득은 101~200만 원이 하가 38%를 차지했으며, 기초생활수급지원을 받고 있다

고 응답한 대상자가 11.2%로 광주 전체 평균인 5.7%의 2배에 달

했다. 여성의 경우 초혼인 경우가 93.1%로 대부분이었으나 남성의 경우는 13.9%가 재혼이었으며, 결혼을 위한 만남은 결혼증명회사(33.2%)나 종교단체나 기관(21.4%) 등을 통해 대부분이뤄졌다.

조사 대상자들은 이러한 불편에도 불구하고, 자아존중감이 평균 3.82점, 부모자녀친밀도는 평균 3.74점, 부부친밀도는 평균 3.56점 등으로 중간 점수 이상을 보였으며, 특히 가정생활 만족도는 3.64점으로, 일반가정 만족도(3.4~3.6점)보다 높았다고 분석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에 대해서 대상자들은 언어교육이나 직업훈련 분야에 대한 만족도는 높으나, 그 혜택이 편중되고 있으며, 앞으로 언어 등 적응능력 향상이나 경제적 지원, 직업 알선 등의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시는 이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공원묘지서 50대 목 매 숨져

2일 정오께 광주시 북구 운정동 시립공원묘지에서 윤모(51)씨가 차 안에 연탄을 피워놓고 차량 문 창살에 목을 매 숨져있는 것을 공원관리인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광주시 동구 내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장을 맡고 있는 윤씨는 3일 전 집을 나가 경찰에 가출신고된 상태였으며, 현장에선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 /김형호기자 khh@

절도범, 격려해 준 경사에 옥중 편지

○...상습 절도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20대 주부가 자신을 사칭해 격려해 준 경사에게 옥중 편지를 보내 눈길.

○...2일 광주지검 순전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구속돼 징역 1년6월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정도(여·27)씨는 최근 임희성(여·34) 검사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냈다.

○...정씨는 "절대 늦은 건 아니에요"라고 격려해준 경사님 배려로 새 삶을 살고 있다. 미용기술을 배워 출소 후엔 정상적인 삶을 살겠다"고 다짐.

○...순전지청 관계자는 "정씨가 출소 후 제2의 인생을 살아가길 바란다"며 "불법에 단호히 대처하면서도 따뜻한 배려를 잊지 않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환영.

/동부취재본부=김은중기자 ejkim@

"가로수 잘 가꾸면 은행으로 보답"

북구의회 이색 조례안

훼손 신고하면 포상금

열매의 '채취권'을 준다는 것이다.

조례안은 가을만 되면 은행을 따기 위해 은행나무를 밭에 차거나 가지를 꺾는 등 가로수를 훼손하고 그로 인해 절도범이 되는 사례가 북구에서만 1년에 6~7건에 달하는데 이를 미리 막고 가로수 관리·보호에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취지다.

또 상가 주인들이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가로수를 일부로 훼손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된다. 가로수 훼손은 처음 신고한 사람에게 피해액의 5%(최대 5만원)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박정우기자 jwpark@kwangju.co.kr

**본 광고는 창업을 준비중인 분, 업종변경을 원하시는 분께
적극 추천하는 아이템입니다.**

www.batterydoctor.com
ISO 9001:2008 / ISO 14004:2004
현대자동차 남동업체
국방부(육군보급청) 남동업체

배터리 재생의 신기술



자동차용 배터리



전동 자개차 배터리

국내 최초 최첨단 기술로 배터리 기능 회복

저비용 고효율을 지향하는 경제주체에 [주]배터리닥터는 미국에서 개발된 최첨단 기술을 도입하여 기존의 국내기술과 달리 자동차 배터리에서 전동 자개차, 고소작업대, 골프장전동차 복수산업용 배터리까지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제품입니다. 국제적으로 원자재(남)길의 상승으로 신물배터리 가격이 폭등하여 소비자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주]배터리닥터의 기능회복배터리는 미국 및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성공증명이며 (주)배터리닥터는 국내최초로 BATTERYDOCTOR SYSTEM을 도입하여 배터리시장의 역할을 주도하고 있으며 일부대리점에서 성공증명입니다. 복잡하고 경쟁이 치열한 사업보다 선진국에서 경쟁을 대박 아이템을 만나실려면 지금 바로 www.batterydoctor.com 으로 확인하세요.

문의전화 전국 시,군,구 대리점모집 031-921-6660[대]

본사 및 공장: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가좌동 643-8번지

(경기남동부/ 인천/ 대구 경북/ 울산/ 충청지사/ 부산경남지사는 모집완료) 전남, 전북 지사 및 대리점모집

근린시설/점포 대표이사 010-7570-7525 아파트/빌라 경매사 010-5879-0005 주택/개별주택 경매원장 010-2811-5588

국민사법/법률 대표이사 010-9611-2817 근린주택 전재임대장 016-608-5951

국민사법/법률 대표이사 010-9611-2817

국민사법/법률 대표이사 010-9611